

韓國 煙草栽培地域의 地理學的研究

金 光 子

<目 次>

- | | |
|---|--|
| 1. 序 論
(1) 研究目的
(2) 研究方法과 資料
(3) 煙草栽培地域 設定의 意義 | 4. 煙草地域의 變遷
(1) 煙草栽培地域의 分布
(2) 煙草集中地域의 分布 |
| 2. 煙草栽培의 立地條件과 한계 | 5. 煙草栽培地域의 特性
(1) 英陽郡 石保面의 경우
(2) 煙草地域의 景觀 |
| 3. 李朝時代의 煙草의 導入과 栽培
(1) 煙草의 전파
(2) 이조시대의 연초재배 | 6. 結 論 |

1. 序 論

(1) 研究目的

煙草는 세계공동의 人間의 기호품이므로 그 栽培領域도 매우 넓고 경제적 가치도 매우 크다¹⁾.

또한 煙草栽培는 가장 잘 区分되고 집약적인 농업형태의 하나이므로 地理學, 經濟學, 歷史學, 農學等의 여러 분야에서 研究되어 왔다. 韓國煙草栽培에 對한 研究들은 主로 農業者들에²⁾ 依해서 行하여 졌으며 이외에는 經營學의 研究³⁾와 經濟史的의 研究⁴⁾가 있다. 煙草栽培에 對한 地理學的研究는 金成基의 研究⁵⁾가 있으며 이는

煙草의 栽培分布를 史的으로 고찰하려했으나 재배지역의 形성과정과 재배지역의 特性을 體系的으로 說明하지 않았다.

本研究의 目的是 韓國에 있어서 煙草栽培가 시작된 이래 栽培領域이 韓國의 自然的 文化的環境下에서 어떻게 地域的으로 形성되어 왔으며 그리고 農業地域의 特殊한 한 部分으로서 인지될 만큼 形成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地理的接近法에 따라 확인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研究目的達成을 위하여 具體的으로 解決하고자 하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즉 연초재배의 보급과 이의 空間的擴散過程에 대한 문제, 1900年代~1960年代의 재배지역의 分布狀態와 形成過程에 대한 문제, 그리고 1960年代以後의 集中栽培地

- 1) Richard M. Highsmith and J. Granville Jensen, 1958, *Geography of Commodity Product*, Chicago: J. B. Lippincott Company, p. 176.
- 2) 許溢, 이정덕, 박은수, 1970, Chemical Control에 의한 품질개선시험, 중앙전매기술연구소 시연보(연초경작분야), pp. 377—384.
- 孫炳龍, 郭炳華, 1970, “담배성장과 nicotine 含量에 미치는 生長調節劑의 영향”, 고대논문집, 자연과학편, 12, 45—51.
- 許溢, 1971, “일담배 재배에 있어서 植物生長調節劑 使用 및 그 展望”, 作會誌, 9, 53—59.
- 文斗吉, 1971. “담배일의 성숙촉진 및 Alkaloid 함량에 미치는 2-Chloro Thiphosphonic Acid.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李仁珪, 1969, “煙草製造廠의 운반관리에 관한 실증적 고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최돈화, 1972, 韓國煙草產業의 史的考察, 서울: 대성사.
- 5) 金成基, 1974, “韓國煙草栽培에 對한 地理的研究”,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域의 形成과 그 特性에 대한 문제等으로 나누어研究하고자 한다.

(2) 研究方法과 資料

本研究는 문헌연구, 통계자료의 分析, 現地踏査等에 의한 조사분석을 위주로 하였으며, 귀납적 採集法에 의하여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

具體的으로 보면, 1900年以前의 全國煙草地域의 변화는 문헌조사에 의하여 考察하였으며, 1900年以後의 것은 연초재배면적율⁶⁾을 이용하였고 集中地域의 확인을 위해 等充線圖(Isopleth map)를 作成하였다. 연초재배호수율⁷⁾과 연초재배면적율이 全國의 평균이상되는 郡들을 편의上 연초집중지역이라 하였으며, 煙草집중 지역에서 中心地域을 확인하기 위하여 各郡의 立地係數⁸⁾를 연초재배면적에 의하여 算出하였다. 이 결과에서 立地係數가 가장 높은 郡을 中心으로 형성되는 一連의 연속된栽培集中地를 煙草栽培의 中心地로 보았다. 아울러 時期別로 立地係數의 空間的 변화를 choropleth map으로 표현 비교하여 郡別 연초재배의 特化度를 分析하였다. 또한 영월, 영양, 홍성, 전안, 함양 等地를 踏査하여 現在住民과 관계기관으로부터 諸情報 및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같은 分析過程을 通하여 한국연초재배의 地域性을 究明하였으며, 특히 中心地域의 農業構造와 煙草栽培에 중점을 두어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煙草地域의 設定은 同質地域(uniform region) 또는 homogeneous region)의 概念을 적용하여 具體化하였다.

$$6) \text{연초재배 면적율} = \frac{\text{일정군의 연초재배 면적}}{\text{일정군의 경지면적}} \times 100$$

$$7) \text{연초 재배 호수율} = \frac{\text{일정군의 연초재배 호수}}{\text{일정군의 농가호수}} \times 100$$

$$8) L.Q. = \frac{Si/Ni}{S/N} \quad (L.Q.: 입지계수, Si: 일정군의 연초재배 면적, S: 일정군의 경지면적, Ni: 집중지역의 연초재 배면적, N: 집중지역의 경지면적)$$

9) David Grigg, 1970, "Regionals, Models and Classes", *Intervated Models in Geography*, ed. Richard J. Chorley and Peter Hagget, Methuen, London, p. 461.

10) Derwent Whittlesey and others, 1967, "The Regional Concept and Regional Method", *Introduction to Geography: Selected Readings*, Thomas Y. Crowell Company, New York, p. 19.

11) Gorden J. Fielding, 1974, *Geography as Social Science*, Harper & Row, New York, p. 38.

12) 앞 글, p. 37.

13) David Harvey, 1976, *Explanation in Geography*, Edward Arnold, London, p. 125.

(3) 煙草栽培地域 設定의 意義

지난 50년 동안 地理學의 目的과 方法은 크게 변화하여 왔으나, 地理學者들은 地域(region)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왔으며, 地域의 研究方法(regional method)을 계속 사용하여 왔다⁹⁾.

地理學의 研究에 있어서 地誌的 연구방법과 地통적 研究방법중에서 어느 것이 더 타당한가에 대하여는 계속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地理學의 主要目的 가운데 하나가 場所間의 空間的類似性 또는 相異性을 研究하는 것이라 한다면, 이러한 目的을 가장 잘 반영하는 편리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地域이다¹⁰⁾.

地域(region)의 定義에 對한 地理學者들의 意見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地域이란 서로 관련된 事象들의 결합에 의해 주위지역과 구별되며 內的結合力を 지닌 地表面의 一部이다¹¹⁾.

즉 地域은 조사자 나름의 合理的 기준에 의해 선택된 指標를 적용하여 이미 있는 형태의 地表面을 일정한 크기의 단위로 分類하여 얻어지는 地理的 所產物이다. 따라서 地域은 空間과 時間에 따라 정도를 달리하는 活動들의 복잡한 分布를 一般화할 수 있게 하며, 地域區分은 類似한 活동들의 結合을 가지는 空間을 究明하거나, 同質性의 空間들을 연결한다¹²⁾. 그러므로 一定空間을 地域區分 할 때 단위공간이 가지는 公通점에 따라 grouping함으로서 복잡성이 감소된다.

이와 같이 地域을 地理的 研究를 위한 과정적 규칙(procedural rule)으로서 설명할 때 地域은 科學에 있어서 계급(class)의 기능과 같으며, 地域區分은 分類(classification)의 한 형태이다¹³⁾.

그러나 最近까지도 地域을 設定하는 일반적 방법은 Isarithms의 사용이었기 때문 地域區分이 分類에 해당함은 否認되어 왔다¹⁴⁾. 分類는 科學의 前進을 위해서 基本的인 것이며, 科學發達의 초기 단계¹⁵⁾이므로 地理學의 발달을 위해서 地域區分은 필요하다.

일정 범위의 空間을 指標에 의해 同質地域으로 구분할 때 區分指標는 단 하나일 수도 있으며 여러개 일 수도 있다. D. Whittlesey는 單一指標를 사용하여 區分된 地域을 單一事象地域 (single feature region)이라 했으며, 서로 性格이 다른 여러 指標를 사용하여 區分된 地域을 複合事象地域 (multiple features region)이라 했다¹⁶⁾.

單一事象地域은 서로 다른 事象들의 관계를 추구하기 위하여 하나의 事象을 조사하여 묘사한다. 지리학자들이 지역연구를 여러 부문으로 나누어서 접근하고자 할 때 그들은 單一事象地域을 설정한다¹⁷⁾. 그러나 單一事象地域 내에서도 여러 개의 작은 단위지역별로 성격의 차이는 있으며,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中心地域을 설정하는데, 中心地域이란 一定指標의

空間的 相關이 가장 높은 지역을 말하며 이의 외곽으로 向할수록 相關은 낮아져서 漸移地帶가 존재한다¹⁸⁾. 또 漸移地帶는 다른 中心地域을 갖는 漸移地帶와 접하므로 지역구분선은 漸移地帶에 설정한다.

農業의 研究에 있어서 地理學者가 사용해온 여러 가지 方法中 地域的 研究方法이 가장 오랜 歷史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만족할만한 방법이다¹⁹⁾.

그러므로 農業의 地域的 차이가 인정되는 한, 農業事象의 同質性에 立脚한 農業地域區分은 가능한 방법이고, 農業地域의 設定에 있어서도 그意義가 있으나, 區分된 個個의 농업지역은 全體 農業體系 (agricultural system) 내에서 설명되어 져야 한다²⁰⁾.

韓國農業地域에 관한 여러 研究²¹⁾들은 同質地域의 입장에서 地域區分을 하였으며 이를 위한 研究對象作物은 대개가 미곡, 맥류, 두류, 잡곡, 쌀류, 과수, 소채, 특용작물 등에 국한하였다.

그러나 韓國에서 재배하는 特用作物²²⁾은 섬유 작물 (면화, 대마, 저마, 아마), 완초, 닭나무, 박하, 호프, 유채, 연초, 인삼 등으로 이들은 각각 재배조건, 전파와 보급과정, 재배기술의 확

14) Grigg, 1970, p. 479.

15) 앞 글, p. 461.

16) 앞 글, p. 464.

17) Whittlesey and others, 1967, p. 26.

18) Grigg, 1970, p. 478.

19) David Grigg, 1969, "Agricultural Regions of the World: Review and Reflect", *Economic Geography*, Vol. 45, No. 2, pp. 110—123.

20) W.B. Morgan and R.J.C. Munton, 1971, *Agricultural Geography*, Methuen, London, p. 126.

21) 朝鮮總督府 勸業模範場, 1923, 朝鮮における 主要作物分布狀況, 서울, 朝鮮印刷株式會社

武田總七郎, 1929, 實驗麥作新說, pp. 377—411.

永井威三郎・中三泰雄, 1930, “朝鮮における水稻の 主要品種と 分布狀況”, 農業試驗場彙報, 제5권, 제1호., Hoon Ku Lee, 1932, *Land Utilization and Rural Economy in Korea*.

이훈구, 1934, 朝鮮農業論, 서울, 한성도서주식회사.

山本尋己, 1936, “朝鮮の農業”, 九州大學農業部 開字十五周年講演集, pp. 209—210.

澤村東平, 1938, “朝鮮農業の 労力組織”, 社會政治時報 제208호.

川口清利, 1939, “ホミの型と其分布”, 朝鮮農學會, 제1권 제1호.

印貞植, 1940, 朝鮮の 農學地帶, 東京, 生活社

岩楳信治, 1941, 新訂稻作改良精説.

佐佐木喬, 1942, 東西の 農業資源, pp. 6~14.

久間健一, 1950, 朝鮮農業經營地帶の 研究, 東京, 農業總合研究刊行會

徐贊基, 1962, “ 경영면에서 본 남한의 농업지역 구분”, 경북대학교 논문집, 6집, pp. 327~381.

_____, 1975, “한국농업의 지역구조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李廷冕, 1966, “한국농업 지역설정에 대한 연구”, 지리학, No. 2, pp. 1~13.

具在書, 1967, 한국농업의 지역성에 관한 연구, 서울 : 고려대학교 농대 국제농업자원연구소.

吉鎔鉉, 1966, “한국작물결합지역의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崔昌祚, 1975, “한국 농업의 작물특화지역분류에 관한 방법론적 고찰”, 낙산지리, 제3호, pp. 1~13.

22) 姜錫午, 1971, 新韓國地理, 서울, 새글사, p. 431.

산, 용도 等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範疇 속에서 연구된다면 일정지역에 있어서의 作物分布나 그 要因을 分析하기가 곤란하다. 특히 연초는 資本의 투자에 비하여 단위면적당 생산액이 식량작물보다 높으므로 農家經濟에 있어서 중요 역할을 한다.

이들 研究에 나타난 作物別分布地域을 보면, 미곡과 맥류는 湖西, 湖南, 嶺南地方의 平野地帶에 分布하고²³⁾, 과실은 大邱, 서울지역에 그리고 소채는 서울근교에 特化하는데, 소채는 대 소비지 부근에서 商品作物로 재배하므로 以外의 지역에서는 域內自給生產에 그치고 있다²⁴⁾. 서류종 고구마는 자연적 재배조건으로 남해안지역에 집중재배되며, 감자는 기후조건과 경제성 때문에 강원도 동부지역에 재배된다. 잡곡은 강원도 서부지방에서 비교적 많이 재배하나 경제성에 있어서 맥류보다 낮으므로 맥작이 불가능한 지역에 分布한다²⁵⁾.

2. 煙草栽培의 입지 조건과 한계

연초는 植物分類上 茄子科의 담배屬(nicotiana)에 속하며 46種이 있다. 이 중 재배연초는 Nicotiana tabacum과 Nicotiana rustica이다.

N. tabacum과 N. rustica의 野生種의 分布中心地는 南美中央部, 南緯 20度附近地帶의 Andes山脈의 高地로서 亞熱帶氣候地帶이다²⁶⁾. 따라서 재배연초의 起源地도 이 附近이며 이 지방으로부터 점차 북부로 이동하여 북 America에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 세계연초재배지는 남위 45° 내외인 南Australia에서 북위 50° 이상인 Greece 북부지방까지 分布한다. 만주에서는 북위 46° 부근까지 재배되며, 日本은 북위 41° 부근의 青森地方에서도 연초재배가 行하여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1905年 실시한 연초재배조사에 의하면 북위 41°

부근인 성진, 무산 等地에서도 연초가 生產되었²⁷⁾.

연초의 生育期間은 약 150日인데 생장의 초기를 苗床(대개 18°C 이상)에서 90~100日 정도 기르면 정상적인 생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高緯度地帶까지 재배되고 있다. 그러나 담배의 품질 특히 맛은 성숙수확기의 기온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 것이며 그 適溫은 20°C~28°C 정도이다²⁸⁾(황색종 : 25~28°C, 채래종 : 23~25°C, 베어리종 : 20~23°C).

우리나라의 경우, 生育기간(5月~9月)에 연초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은 함경북도 북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全地域이지만, 한편으로 경제적 연초재배의 適溫이라 할 수 있는 20°C 等日數線은 훨씬 남하한다. 즉 20°C의 期間이 100日 이상되는 지역은 남부지방과 해주와 개성을 잇는 일부지역이므로 기온조건으로 볼 때 연초재배의 적정지는 사실상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人爲的인 가온시설로 자연적 재배환경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연초재배시 기온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연초재배에 알맞는 강우량은 월평균 100mm 内外가 적당하다²⁹⁾. 香喫味用 원료생산지로서 유명한 Turkey의 Xanthi지방은 거의 강우가 없다고 하며, 황색종의 원산지인 美國의 Virginia 연초산지도 생육기간 중에는 月平均 강우량이 100 mm 内外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연초 생육기간(5月~9月)의 강우량은 月平均 131.3mm로 다소 많은 편이다.

특히 이식기인 5月은 85.4mm로 부족하고 6月~9月은 월평균 177.2mm로 강우량의 月別分布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良質의 煙草栽培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品質이 좋은 잎담배를 생산하려면 日照가 강하고 일조시간이 길수록 좋다. 그러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황색종과 같이 香味를 필요

23) 徐贊基, 1975, p. 36.

24) 앞 글, p. 28.

25) 崔昌祚, 1975, pp. 13~16.

26) 村岡洋三, 1952, 農家六系, 煙草編, 東京, 養賢堂, pp. 1~2.

27) 조선총독부 전매국(편), 1936, 朝鮮專賣史 上, p. 34.

28) 金光植의 14인, 1973, 한국의 기후, 서울, 일지사, p. 190.

29) 전매청(편), 1970, 전매사업백서, 서울, 전매청, p. 49.

로하는 것은 특히 강한 日照가 필요하다.

한편 재래종에 있어서는 황색종과 같은 강한 日照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山間部 등의 日照가 적은 地方에서도 良質의 煙草生產이 가능하다³⁰⁾.

우리나라의 경우 연초생육기간 중의 일조시간이 가장 많은 지역은 관서지방의 서해안 일대와 황해도이다.

土壤은 砂壤土나 壤土가 좋고, 地勢는 若干 傾斜地로 排水가 잘 되는 곳이어야 한다. 土壤酸度는 PH 5.6~5.8이 最適이며 PH 5.5~6.5 범위도 가능하다³¹⁾.

연초재배시 특히 연초의 收穫과 乾燥에는 많은 労動力を 必要로 한다. 미국의 생산에는 10a 당 25~30人の 労動者가 필요한데 비하여, 연초는 120~130人の 劳動力を 필요로 한다³²⁾. 우리나라의 경우 專賣品인 연초의 収納은 일단 乾燥한 것이라야 하므로 生產農家는 適當한 煙草乾燥室을 具備해야 한다. 乾燥된 잎담배의 貯藏이나 輸送은 容易하므로, 交通은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다. 다만 収納할 때는 所定의 規格대로 包裝되어야 하므로 包裝用 藥工品(꺼치)이 自家生產되지 않는 農家는 이를 購入하기 위한 약간의 資金이 必要하다. 잎담배의 가격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미리 공고하고, 생산된 全量을 수납하기 때문에 収納價格만이 存在한다³³⁾.

3. 李朝時代의 煙草導入과 栽培

(1) 煙草의 傳播

煙草의 種子는 1518年 Frncisco Lortez에 의해 America로 부터 Europe에 傳해져서, 1560年頃

에는 Europe의 각국에 보급되어 재배되었다³⁴⁾.

日本에 연초를 傳播한 것은 1580年頃 Portugal商人이다. 처음에는 연초가 상품으로서 수입되었으나, 1605年頃 연초種子가 傳來된 以後 煙草栽培는 急速히 各地에 普及되어 1615年頃에는 商品作物로서 재배되었고, 연초의 名產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³⁵⁾. 中國은 1615年 Phillipine의 Luzon 섬에서 福建省地方으로 전파되었다. 다시 말하면 연초는 外來商船들의 物物交易으로 16C 초부터 교역되다가 1615년에 種子가 전래되어 福建地方에서 재배하였다³⁶⁾. 또한 「正祖實錄」에도 “南草始出於 南方外之國 而實則 自西洋”³⁷⁾이라 하여 煙草(南草)가 西洋에서 東南亞를 거쳐 들어왔음을 기재하였다.

韓國에 煙草가 전래된 것은 「仁祖實錄」³⁸⁾에 의하면 丙辰年에서 丁巳年間(1616年~1617年)에 바다를 건너 들어왔다고 하며(南靈草 自丙辰 丁巳年間 越海來 人有服之者), 「大東紀年」의 仁祖大王 15年條에는 “南草始南第 盛於日本 戊午年間始來本國 張維先嗜 名曰痰破塊”³⁹⁾라하여 戊午年(光海君 10年, 1618年)에 日本으로 부터 우리나라에 渡來하여 張維가 痰破塊라 이름 지었음을 알 수 있다. 「五洲衍文長箋散稿」⁴⁰⁾에서도 光海君 10年(1618年) 즉 戊午年으로 고증하였다(萬歷戊午之際 又來我東 或稱烟茶 或稱火酒).

「증보문헌비고」에도 “淡波姑草名 亦號南靈草 近歲始出倭國…… 比草 光海君壬戌 年間始來東國”⁴¹⁾이라 하여 煙草(淡波始)가 光海君 14年(1622年)壬戌年에 日本으로 부터 들어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만주에서 재배하는 연초의 품종이 일본의 재래종인 秦野種과 類似하다⁴²⁾는 것은 연초재배가 日本으로 부터 韓國을 거쳐 이루

30) 南基桓의 5인, 1971, 新制煙草學, 서울, 芳文社, p. 55.

31) 農業협동조합중앙회 조사부(편), 1967, 주요농산물의 경제성분석, p. 290.

32) 西川五郎, 1960, 工藝作物學, 東京, 農業圖書株式會社, p. 550.

33) 전매청(편), 1970, p. 107.

34) 전매청(편), 1970, pp. 9~30.

35) 村岡洋三, 1952, p. 4.

36) 전매청(편), 1970, p. 32.

37) 正祖實錄, 朝鮮王朝實錄, 제47권,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73, 21年 7月條(1797年)

38) 仁祖實錄, 朝鮮王朝實錄, 제37권,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73, 16年 8月條(1638年)

39) 최돈화, 1972, p. 18.

40) 李圭景(출판연도 미상), 五洲衍文長箋散稿, 권4, 국사편찬위원회(편), 1959, p. 96.

41) 증보문헌비고, 응희 2년(1908), 고전간행회(편), 서울, 동국문화사, 영인본, 1957, 권 11.

42) 橫濱花兒七稿, 1921, 滿洲の煙草, 東京, 專賣局, p. 1.

어진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煙草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李朝 光海君 8년에서 14년(1616年~1622年)間에 日本 으로부터 전래하였으며, 그 명칭은 南草, 南靈草, 淡婆始, 疢破塊라 하였다.

(2) 李朝時代의 煙草栽培

李朝 光海君 때 전래된 煙草는 噸煙慣習과 더불어 그 栽培도 急速의으로 全國各地에 普及擴大되었으며 1630年代에는 하나의 商品으로서 거래되었음이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仁祖實錄」에 依하면 辛酉壬戌年(1621年~1622年) 以來 이를 服用하지 않는 者가 없다고 하였으며(南靈草…… 辛酉壬戌以來 無人不服)⁴³⁾, 「嗜陽狀啓」에는 丙子胡亂이 일어난 當年(1636年) 西道各地에 牛疫이 蔓延되어 廢農의 위기에 處하게 되었을 때 蒙古와 滿洲等地에서 農牛를 購入하고 그 代價로 布木과 毛皮以外에 煙草를 使用하였으며, 또 胡亂에 捕虜가 되어 胡地로 간 수만명의 將兵이 瞢還 代價로 연초를 使用하였다⁴⁴⁾고 기록되어 있다. 또 仁祖 15年(1637年)에는 우리나라 商人이 清國에 煙草를 販賣한 바 對하여 清國으로부터 問責의 通牒이 있었다(仁祖十五年 丁丑 清人稿文我國 責賣南草時 清人嗜南草我使之行私商絡繹烟比失火 清人多燒死 汗大怒一切禁斷犯則斬之)⁴⁵⁾.

煙草始源地에 관한 문헌상의 기록은 없으나 연초가 始初 日本에서 영남지방에 渡來되어 漸次北上하여 全國各地에 普及된 것으로 추정된다.

李朝時代에 日本과의 貿易은 國初부터 시작되어 오다가 一時 衰退하더니 1606年(선조 39年)부터 3甫(態川의 乃而浦, 東萊의 富山浦, 蔚山

의 鹽浦)를 再開하자 차츰 活潑하기 시작했다⁴⁶⁾.

日人们과의 무역은 주로 開港地에 위치한 倭人们的 居住地 즉 倭館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밖에도 일본사신이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목인 경북 칠곡군의 왜관(倭館)에서도 이루어졌다. 이곳은日本人이 서울로 가져가는 교역품을 배에싣고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하역하는 지점이다⁴⁷⁾. 그리고 울산, 동래와 칠곡군의 왜관에는日本人이 常住하였으며 이들과 現地의住民間에는 密貿易이 盛하였으므로⁴⁸⁾ 煙草種子의導入도 이러한 密貿易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李朝雜歌인 “담바귀 타령”은 영남지방에서 널리 愛唱되었고⁴⁹⁾, 그 내용⁵⁰⁾도 연초가 동래, 울산지역의 傾斜地에서 많이 재배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연초의 始源地는 동래, 울산, 칠곡군의 왜관으로 추정된다.

1600年代에 韓國에 전파된 연초는 1700年代에 이르러 各地에 名葉產地를 이루었다. 「擇里誌」에서는 “鎮安之烟田”⁵¹⁾이라 하여 鎮安의 담배밭이 나라안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千一錄」에는 “三登, 香草稱於國內 而其他江東成川及中山各邑多爲資用”⁵²⁾이라 하여 三登, 成川, 江東等을 연초의 산지라 했고, 丁茶山은 英陽地方에서 煙草가 재배되고 있음을 말했다(曉雨廉纖合種烟 苗移植小籬邊 今春別學英陽法 要販金絲度一年)⁵³⁾. 따라서 1700年代의 名葉產地로는 전안, 성전, 삼등, 강동, 영양, 영월⁵⁴⁾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山間地帶에 위치하는데 煙草產地가 山間地帶에 偏在하게 된 理由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는, 식량증산을 목적으로 良田에 對한 煙草의 栽培를 禁했으므로 不得已 山間僻地를 利

43) 仁祖實錄, 16年 8月條(1638).

44) 전매청(편), 1970, p. 37.

45) 李圭景, 권 16, 雲鏡彙編.

46) 崔虎鎮, 1970, 韓國經濟史, 서울, 박영사, p. 180.

47) 강만길, 1975, 韓國商業의 歷史, 교양국사총서, 제13권, 서울,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pp. 181~182.

48) 최호진, 1970, pp. 178~180.

49) 성경인, 장사훈(편), 1949, 조선의 민요, 서울, 국악음악문화사, pp. 232~236.

50) 귀야 귀야 담바귀야, 동래 울산의 담바귀야, 銀을 주려 왔느냐, 金이나 주려고 왔느냐, 銀도 없고 金도 없어 담바귀씨를 가지고 왔네, 지기저기 저 산밑에, 담바귀씨를 솔솔이 뿌려...

51) 이중환, 1714, 擇里誌, 李寅成(譯), 서울, 乙酉文化社, 1976, p. 169.

52) 千一錄, 卷1 關西條, 최준화(1972), p. 33, 재인용.

53) 정약용(출판연도 미상), 與猶堂全書, 권 4, 서울, 景仁文化社, 影印 축소판, 1970, 長醫農歌.

54) 전매청(편), 1970, P. 59.

用하게 되었다. 「英祖實錄」에 依하면 三南地方에 每年 颗作이 들어 餓民이 數萬戶에 达하였으므로 그 救濟策으로서 朝庭에서 三南地方의 良田에 南草栽培를 禁했다 한다 (命三南道臣 禁民田之種南草 因李周翊疏而承旨 李龜休申請之也)⁵⁴⁾.

둘째는, 하천유역의 충적지대에서의 연초재배는 배수가 나빠 良質의 연초를 생산할 수 없다⁵⁵⁾. 또 재래종 연초는 山間部 등의 일조가 적은 지방에서도 良質의 연초생산이 가능하다.

세째는, 연초는 連作을 할 경우 그 수확량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병충해를 유발하는데 平野地方에서는 連作을 회피하기가 곤란하므로 山間地方에서 농민들이 火田을 개간하여, 連作을 피하는 동시에 식량작물재배에 부적당한 토지를 이용하게 되어 점차로 山間地方에 名葉產地가 형성된 것으로 믿어진다. 또한 1700年代의 名葉產地가 全國에 分散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연초재배가 全國에擴散된 것도 1700年代 以前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당시, 연초의 北上經路를 交通路⁵⁶⁾와 관련지어 고찰하면 그림 1과 같다. 즉 왜관, 울산, 동래에 재배하기 시작한 연초는 주로 서울—동래路를 따라 北上하였으며, 二次的으로는 서울—통영路에 의해 서울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러나 진안지방의 연초재배의 시작은 어느 經路를 따라 전달되었는지 더 많은 史的研究를 필요로 한다. 서울 以北地域의 연초는 서울—의주路를 따라 황해도와 평안도에 이르렀고, 함경도는 서울—경흥路를 따라 보급되었으리라 추정된다.

특히 함경도 해안지방의 전파는 蔚山으로부터 北上하는 해안도로를 따라서 원산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그리하여 18C 以後에는 良田美畜이 모두 연초재배지로 변했다는 기록⁵⁷⁾이 나올 정도로 연초재배는 계속 늘어갔고 地方場市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商品의 하나가 되어갔다.

1830年~1840年代에 편찬된 徐有渠의 「林園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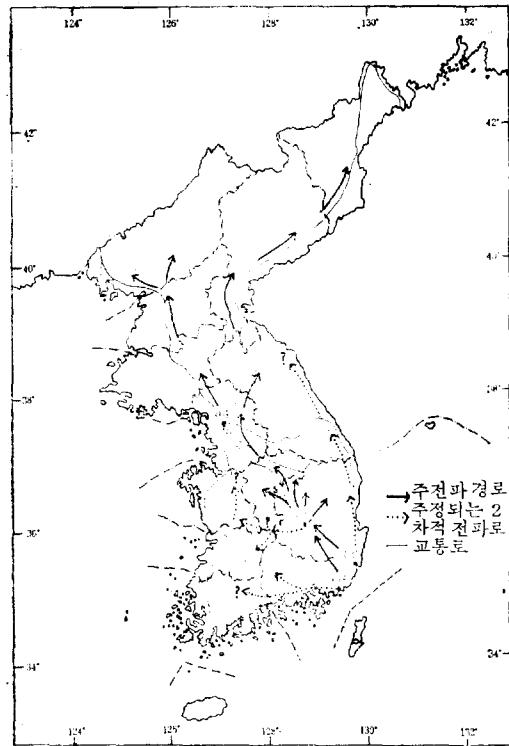


그림 1. 연초재배의 확산경로

濟誌⁵⁸⁾에 기록된 1052개소의 全國場市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무렵의 場市에는 煙草가商品으로서 대량 매매되었음을 알 수 있다. 商品이름이 밝혀진 324개소의 場市 가운데 煙草가 거래된 場市가 171개소로 되어 있다. 또한 연초의 商業的栽培가 活潑하였으며,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 연초가 거래된 場市의 주변지역을 연초재배지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2와 표 1에 의하면 연초재배 지역의 1/2 정도가 경상도와 평안도지방에 위치한다.

20C에 이르러, 연초재배지역의 領域은 日本의 한반도 强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급속히 변모하였다.

1905년에 調印한 제2차 韓日協約에 의하여 설치된 統監府는 財源確保를 서둘렀다. 그 당시 煙

54) 英祖實錄, 朝鮮王朝實錄, 제32권,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73, 8年 8月條(1974).

55) 村岡洋知, 1952, P. 57.

56) 이혜운, 1976, “조선시대의 교통로에 대한 역사지리적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편), 1972, 한국문화사대계 VII, 서울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pp. 461~507.

57) 純祖實錄, 朝鮮王朝實錄,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73, 8年 11月條(1908).

58) 徐有渠(출판연도 미상), 林園經濟志, 倪圭志, 서울, 서울대학교 고전간행회, 1966.

草는 普遍的인 嗜好品으로서 國民間에는 半必需品으로 되어있어 그 消費量도 적지 아니하여 課

稅對象으로서의 好條件을 具備했을 뿐만 아니라 將次專賣事業으로서도 가장 適當한 것으로 認定

표 1. 이조밀기의 연초산지

연대	1830~1840년대	1905~1909년	나타나지 않는 지역*	나타난 지역**
경기	수원, 남양, 인천, 부평, 고양, 교하, 용인, 진위, 저평, 파천, 양성(안성), 포천, 석성, 양주, 양근(양평) [15]***	파천, 광주, 용인, 양지, 양평, 여주, 파주, 장안, 개성, 양주 [10]	수원, 남양, 인천, 부평, 고양, 교하, 진위, 저평, 양성, 포천, 석성 [11]	광주, 양지, 여주, 파주, 장안, 개성 [6]
충청	공주, 청주, 홍천(홍주), 정산, 청양, 서산, 부여, 홍산, 임천, 은진, 연산, 진잠, 청산, 회인, 문의, 청안, 예산, 영동, 피산, 평택, 떡산, 진천 [22]	목천, 천안, 은양, 공주, 청양, 전의, 서산, 회덕, 진잠, 연산, 홍산, 남보, 해미, 정산, 영준, 제천, 충주, 청주, 청안, 피산, 보은, 회인, 진천 [23]	부여, 임천, 은진, 청산, 문의, 예산, 평택, 떡산 [8]	목천, 천안, 은양, 전의, 회덕, 남보, 해미, 영춘, 제천, 충주, 보은 [11]
경상	대구, 경주, 안동, 창원, 상주, 진주, 울산, 영해, 밀양, 청송, 동래, 인동, 순흥, 하동, 거창, 초계, 함양, 영천, 홍해, 풍기, 함안, 금산, 영덕, 의성, 경산, 남해, 재령, 의령, 용궁, 봉화, 청하, 함창, 지례, 고령, 단성, 의흥, 신령, 예안, 사천, 기장, 삼가, 자인, 문경, 안의, 영양 [45]	하동, 산청, 안의, 거창, 함양, 금산, 상주, 문경, 신령, 영천, 경주, 청도, 하양, 안동, 예천, 지례, 영천, 홍해, 풍기, 함안, 영덕, 경산, 남해, 재령, 의령, 용궁, 봉화, 청하, 고령, 단성, 의흥, 사천, 기장, 삼가, 자인, 영양, 함창, 사천 [20]	대구, 창원, 진주, 울산, 영해, 밀양, 동래, 인동, 순흥, 초계, 홍해, 풍기, 함안, 영덕, 경산, 남해, 재령, 의령, 용궁, 봉화, 청하, 고령, 단성, 의흥, 사천, 기장, 삼가, 자인, 영양, 함창, 사천 [31]	산청, 금산, 청도, 하양, 예천, 진보 [6]
강원	원주, 춘천, 영월, 안협 [4]	영월, 경선, 평창, 횡성, 원주, 금화, 금성, 회양, [8]	춘천, 안협, 김화, 금성, 회양 [5]	정선, 평창, 횡성 [3]
황해	해주, 황주, 연안, 평산, 서홍, 꾀산, 웅진, 장연, 봉산, 안의, 재령, 수안, 백천, 신천, 금천, 신계, 문화, 장진, 송화, 강령, 은율, 안산 [22]	곡산, 신계, 수안, 백천, 황주, 장연, 송화, 서홍, 봉산 [9]	해주, 연안, 평산, 웅진, 안악, 재령, 신천, 금천, 문화, 장진, 강령, 은율, 안산 [13]	
평안	평양, 안주, 정주, 영변, 성천, 창성, 삽주, 구성, 숙천, 강계, 삼화, 중화, 철산, 용천, 선천, 자산, 초산, 합종, 운산, 화천, 박천, 덕천, 개천, 순천, 상원, 벽동, 위원, 영원, 가산, 광산, 순안, 용강, 병산, 강서, 영유, 삼동, 맹산, 강동, 은산, 의주 [40]	성천, 강동, 상원, 안주, 의주, 벽동, 초산, 창성, 위원, 삽주, 광산, 철산, [12]	평양, 정주, 영변, 구성, 숙천, 강계, 삼화, 중화, 용천, 선천, 자산, 합종, 운산, 회천, 박천, 덕천, 개천, 영원, 가산, 순안, 용강, 병산, 강서, 영유, 삼동, 맹산, 운산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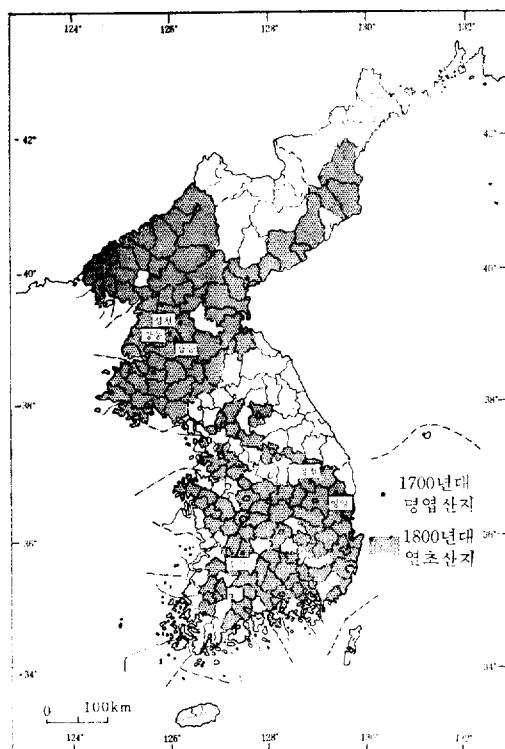
연대 도	1830~1840년대	1905~1908년	나타나지 않은 지역*	나타난 지역**
합 경	함흥, 길주, 북청, 영흥, 안 변, 정평, 덕원, 경성, 명 천, 단천, 홍원, 이원 [12]	고원, 영흥, 함흥, 북청, 경성, 길주, 성진, 부산 [8]	안변, 경평, 덕원, 명천, 단천, 문천, 홍원, 이원 [8]	고원, 성진, 무산 [3]
전 라	전주, 나주, 남원, 순천, 장 성, 보성, 진산, 창평, 용 담, 정읍, 구례, 운봉, 임 실, 진안, 태인 [15]	장흥, 순천, 무안, 합평 나주, 영암, 동북, 고산 진산, 금산, 용담, 전주 임실, 진안, 장수, 부주 정읍, 태인, 운봉 [19]	남원, 장성, 보성, 평창, 구례 [5]	장흥, 무안, 합평, 영암, 동북, 고산, 금산, 장수, 부주 [9]
계	171	109		108
				38

출처 : 1830년대의 자료는 「임원경제지」에 의거하였으며, 1905년의 자료는 「조선전매사」 상권에 의거하여 작성.

* : 1830년대에는 연초산지로 나타났으나 1905년에는 연초산지로 나타나지 않은 지역.

** : 1830년대에는 연초산지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1905년에는 연초산지로 나타난 지역.

*** : 각도의 연초산지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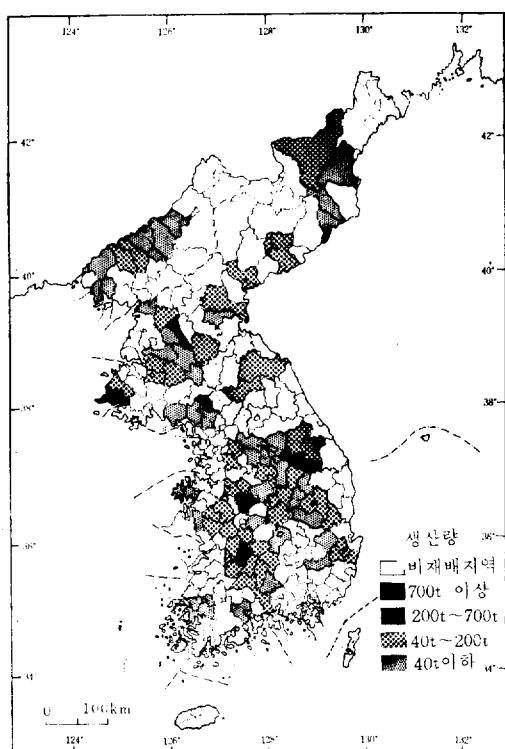


*「임원 경제지」에 의거하여 작성

그림 2-1. 이조시대 연초산지

되어 이를 財源으로 할 計劃을 세웠다. 그리하여 1905年~1909年 全國의 煙草栽培, 製造, 販賣等의 實態를 調査하였다.

이 결과(그림 2와 표 1 참조)에 依하면 연초產地는 1830年代 것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그림



출처 : 조선전매사 상권에 의거하여 작성

그림 2-2. 1905년~1909년 연초산지

1과 그림 2을 비교하면 쇠퇴한 지역은 대개가 平野地帶의 연초산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황해도와 평안도의 연초산지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낙동강 유역의 것도 감소하였다. 평야지대의 연초재배의 감소는 미곡증산과 관련된 것으로

로 추정된다. 1850年以後 日本은 급격한 인구증가로 그들의 농업생산만으로는 自體內의 食糧需要를 충당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식량의 절대량 부족을 臺灣 및 기타의 外國으로부터 수입해 들여오는 미국으로 겨우 充當해 나갔다⁵⁹⁾. 그러나 1876年 강화도조약에 의해 한국의 문호가 개방됨에 따라 日本은 한국을 그들의 食糧供給地로 발전시켰다. 또 이를 더욱 가속화 시킨 것은 1894年의 稅制改革이다. 이는 以前에 실시되던 現物納付를 現金納付의 稅制로 개혁한 것이다⁶⁰⁾.

이에 의하여 농민은 租稅納付로 因한 現金의必要가 생겼으며, 농민의 現金입수는 농산물을 상품화하는 方途以外에 別道理가 없었을 것이다.

농민의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일본상인들은 수확기 以前, 특히 춘궁기 같은 때를 이용하여 後日 미국수확량의 전부 혹은 일부를 매도하는 계약下에 前貸하였다⁶¹⁾. 그리하여 농민들은 미국증산에 주력하여, 1890年代以後의 미국수출액은 전수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했으며, 미국생산이 가능한 평야지대에서는 연초재배가 쇠퇴하게 되었다. 연초생산량의 감소로 국내의 소비를 충당할 수 없어 부족량은 日本에서 輸入했다⁶²⁾.

4. 煙草地域의 變遷

(1) 煙草栽培地域의 分布

煙草栽培地域을 확인하기 위하여 一次的으로 연초재배 면적율을 산출하여 그 分布 現況을 時期別로 比較 分析하였다. 그림 3은 연초재배 면적율을 地圖化한 것이며, 郡別 연초 재배면적율은 해당 郡의 연초재배면적을 耕地 面積으로 除한 것의 百分율이다.

그림 4에 의하면 1940年의 연초재배는 1920年 보다 더 分散되었는데, 이는 1912年 忠州地方에서 最初로 재배되기始作한 황색종이 1940年代에는 全國에擴散 재배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1960年 以後에야 栽培集中 경향을 나타낸다.

이조시대에 비하여 1920年의 煙草地域의 분포 유형은 全國에 分散하여 나타나며 영월지방의 연초 재배율이 가장 높고, 단양, 제천, 충주, 괴산等의 煙草產地가 새로이 형성되었다. 또 平安道地方은 1909年에 비하여 연초재배가 쇠퇴하였으며, 全南地方의 대부분의 연초재배지는 1909년에는 海岸地域에서 나타나나 1920年은 內陸地域에서 연초재배가 많이 行하여진다. 1940年에는 영월을 中心으로 한 연초재배지역이 쇠퇴한 反面 忠北과 全北의 煙草栽培가 發達하였으며, 1961年的 연초재배는 1940年에 비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 나타나는 反面, 慶北 英陽郡을 除外한 大部分의 地域은 煙草栽培의 發達이 거의 없었다. 1976年的 연초재배는 全國的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英陽을 中心으로 한 安東 青松地方의 煙草栽培가 탁월하게 發達하였다.

이는 그림 7의 面別 分布圖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는데, 연초재배 면적율이 가장 높은 面은 英陽郡 石保面으로 1970年에는 재배율이 35%였으며 1976年에는 40%이다. 충북의 연초재배는 1970年과 1976年을 비교하였을 때 거의 변동이 없는 反面 충북과 인접한 경북 예천군 상리면을 中心으로 연초재배가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煙草集中地域의 分布

國內에서 재배하는 商品作物의 栽培分布 현황은 재배조건, 國내의 市場, 노동력, 전통적인 재배풍습등에 의해 크게 左右되고 있다. 特히 煙草, 人蔘⁶³⁾, 茶⁶⁴⁾ 等의 作物은 대체적으로 局地化(localitization) 하여 재배되는 反面에, 기타 많은 商品作物은 全國的인 재배분포를 보이고 있다. 국지화하여 栽培된 作物의 分布特色은 그集中 정도에 따라서 地域의 特色을 밝힐 수 있으며, 또 이를 時系的으로 볼때 그 變化된 過程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本節에서는 煙草를 集中的으로 栽培하는 地域의 形成에 關한

59) 최호건, 1970, p. 234.

60) 李北滿, 1948, 李朝社會經濟史研究, 서울, 대성사, p. 268.

61) 앞 글, pp. 260~269.

62) 張志潤, 1907, 大韓新地誌乾, 卷 1, 私家版.

63) 許宇亘, 1976, “人蔘의 空間的擴散에 關한 地理學的研究”, 청주여자대학교논문집, 제5집, pp. 33~55.

64) 李智皓, 1977, “韓國茶業에 關한 地理學的研究”, 지리학과 지리교육, 제7집, pp.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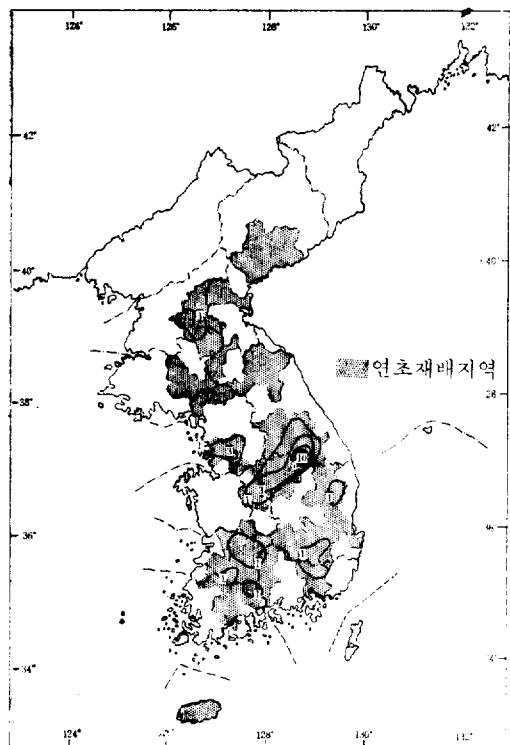


그림 3. 1920년 연초재배 면적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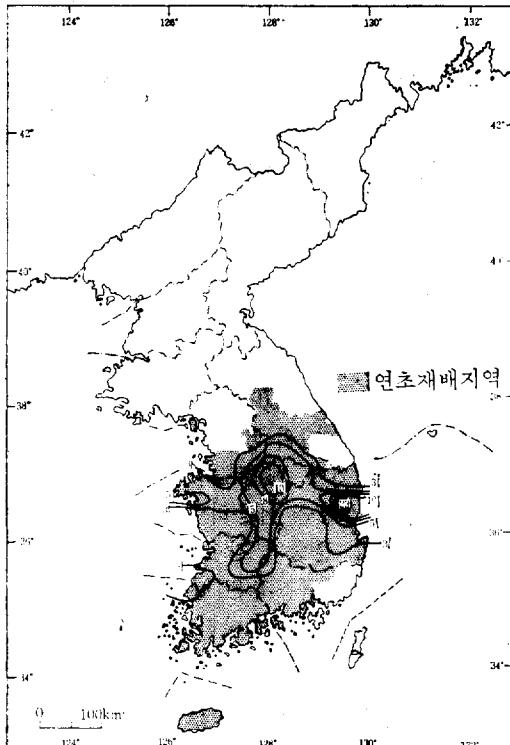


그림 5. 1961년 연초재배 면적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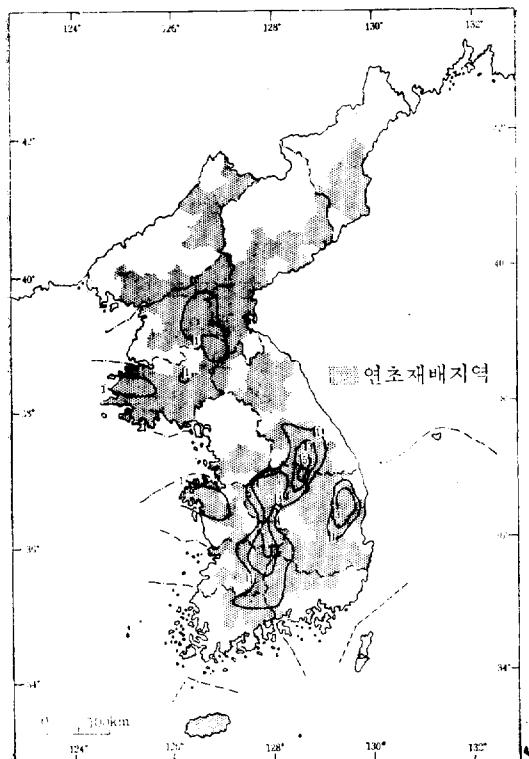


그림 4. 1940년 연초재배 면적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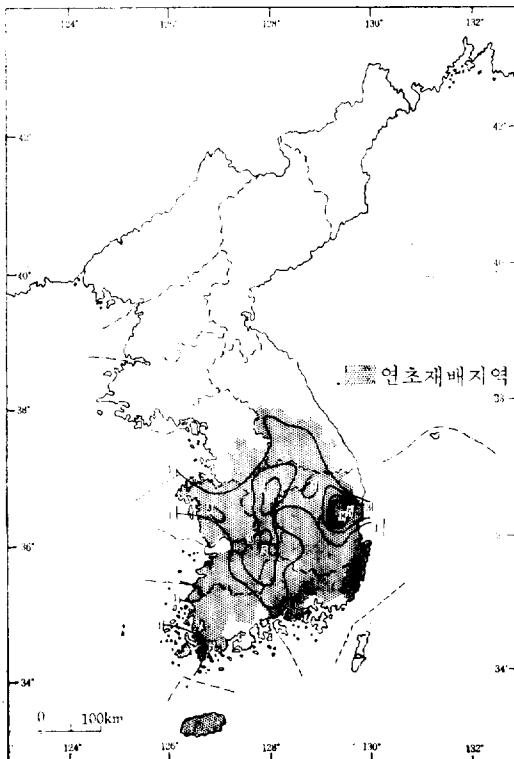


그림 6. 1976년 연초재배 면적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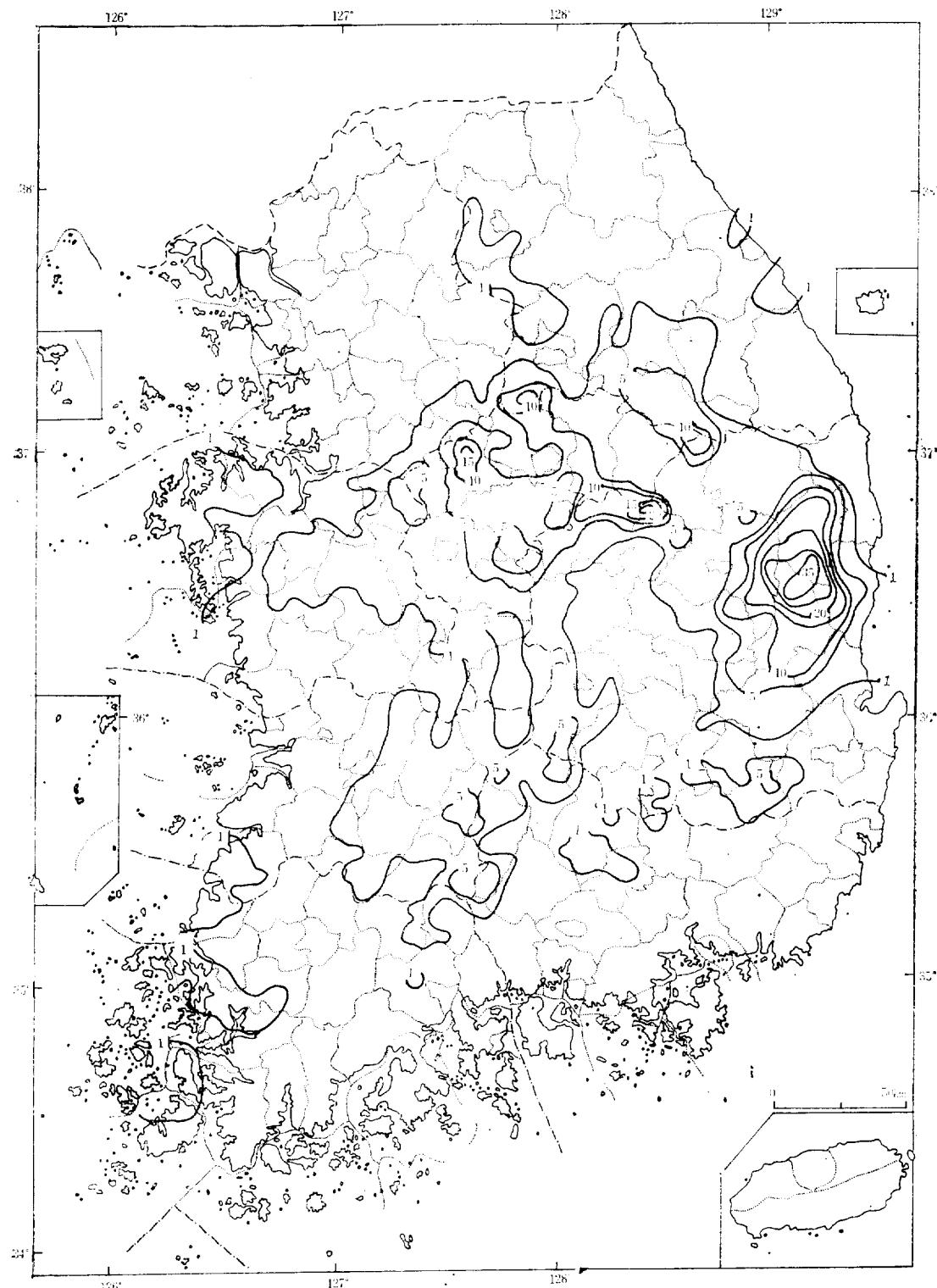


그림 7. 연별 연초재배면적율(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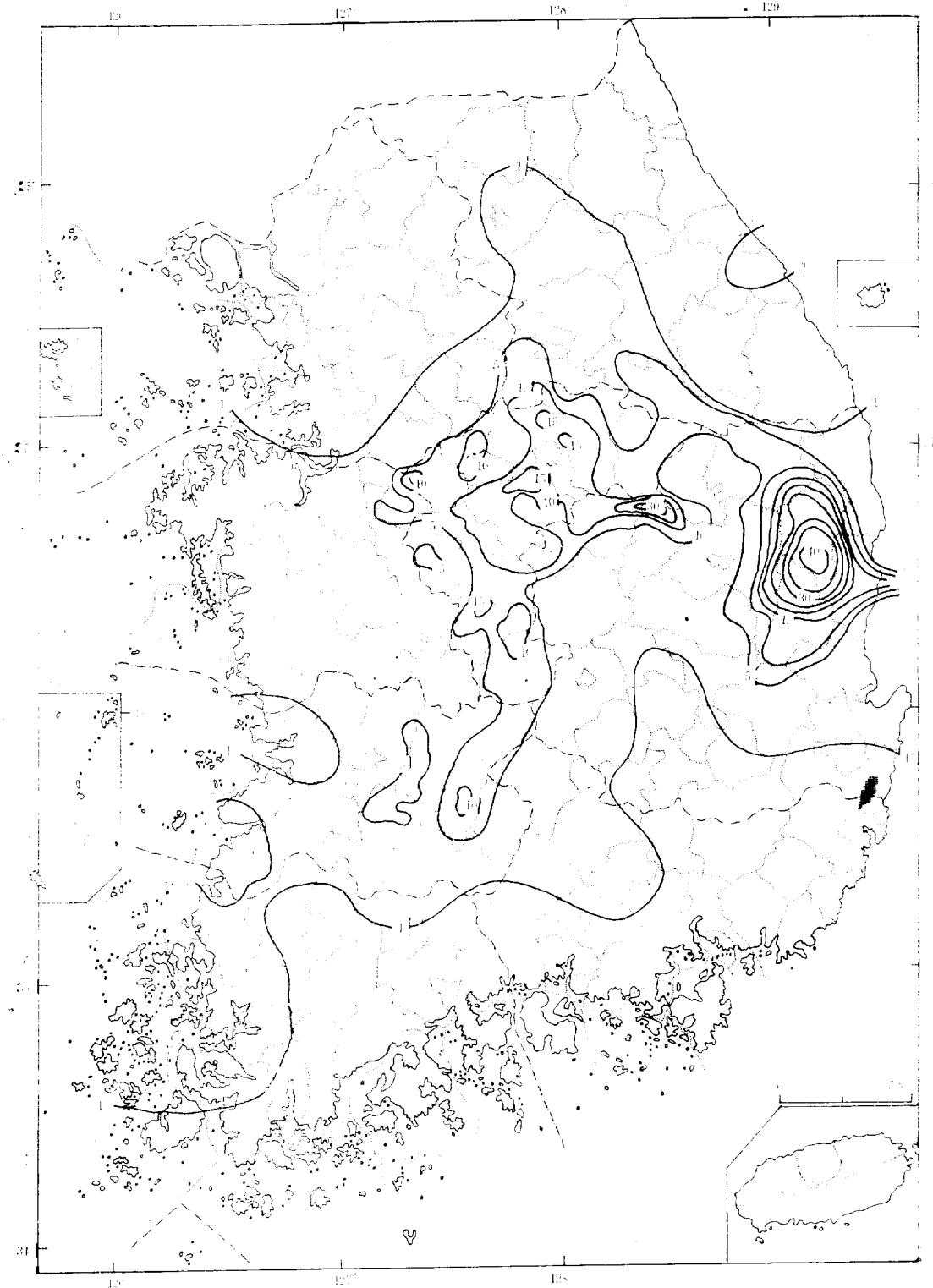


그림 8. 연별 연초재배 면적율(1976)

特化度를 산출하여比較考察하기로 한다.

그림 9에 의하면 연초 집중지역의 분포유형의變化는 時期에 따라 변하는栽培品種, 吸煙嗜好, 輸家所得, 專賣制度 等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조시대부터栽培하여온 재래종 연초는 원래 주로 荒刻煙草 제조원료로 使用하였던 바, 1920年以後의 황색종을 제조 원료로한 紙卷煙의 수요가 급격히 增加함에 따라 점차 그 用途가 줄어들어, 재래종 연초재배는 감소하였으나, 황색종의 재배는 증가하였다. 따라서 황색종의 最初栽培地域인 忠北地域의 煙草產地가 1920年代부터 새로이 形成되었다. 또 1960年代에는 점차주변으로 확대되어 英陽을 中心으로 안동, 청송等地의 煙草產地가 忠州地域에 뒤에 形成되었다.

좀 더 具體的으로 時期別 特化度의 變化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20年代의 集中地域의 分布는 全國에 分散하며, 영월이 그 特化度가 가장 높다. 1940年에도 特化度가 가장 높은 지역은 영월이었으나 그 特化度는 1920年에 비해 다소 떨어졌다. 이러한 特化度의 低潮現象은 실제 재배면적의縮小現象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즉 1920年的 영월의 재배면적은 1,293.8ha이나 1940年에는 807.9ha로 감소하였다. 이는前述한 것과 같이 소비자의 嗜好 변화에 따른 재래종의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므로, 1940年代까지 재래종을 재배하던 영월의 煙草栽培는 矫黜하였다.

1940年에는 충북지방이 높은 特化度를 보였으나, 경기도와 경남 내륙지방은 前期에 比해 特化度가 낮아졌다. 또한 흥성, 예산, 청양 等의 충남 북서부에 새로운 集中地域이 形成되었다.

前期에 비해 特化度가 낮아진 이유는 시흥, 광주, 용인, 밀양, 창녕 等으로 종래의 재래종 재배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에 아울러 特化度가 낮아진 또 다른 理由는 1921年 전매제도 실시 以後 煙草栽培에 있어서 경제적이익성이 他地域과同一함과 더불어 수리시설의 완비, 日帝의 미곡증산 정책등으로 米穀生產에 主力하였기 때문이다. 1960年代의 煙草集中地域은 충남 북서부지역,

전북 북부와 충북지역, 英陽을 中心으로 한 安東, 青松地域에 分布한다. 特化度가 으뜸인 地域은 英陽으로, 이를 中心으로 青松, 安東 等이 煙草栽培가 충북지방에 비해 더 집중하였으며, 이의 隔差는 1970年代에 이르러 더욱 深化되었다. 또한 고창, 영광, 무안 等地의 海岸地域의 特化度가 높아졌으나, 以外의 大部分 地域에서는 特化度가 1960年代보다 낮아졌다.

하동, 산청, 함양, 거창 等地의 特化度의 低下는 葉煙草 조합의 경영체계가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1974년 함양 협연초조합이 전매청 행정명령으로 해체됨에 따라 거창협연초조합에 함양군이 편입되었으나, 1975년 함양협연초조합이 복구됨으로써 다시 함양군을 관할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산청군이 진주협연초 조합에서 함양협연초 조합으로 되었다⁶⁵⁾. 이러한 일관성 없는 경영체계는 農民들의 心理的不安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하여 각 農家에서는 煙草栽培를 회피하였다. 그러나 1975年부터 논의 이모작 등에 따라 煙草栽培가 권장되어 앞으로 이 지역의 煙草栽培는 증대할 것이라 생각한다. 논의 이모작으로 煙草를栽培할 경우, 논당배의 경제성(논당배 : 10a당 생산액은 253천원, 논보리 : 10a당 생산액은 50천원)⁶⁶⁾은 논의 2모작으로 논보리를栽培하였을 때의 약 5배에 달하며, 노동력의 時期的 배분도 벼농사의 농한기에 해당한다. 즉, 煙草의 移植은 3月末부터 4月初에 실시하며 첫 수확은 5月末부터 시작하여 6月中旬이면 끝나게 되므로, 모심기는 煙草栽培가 끝난 논에 할 수 있다.

충남 북서부지역인 서산, 청양 等地의 特化度는 前期에 비해 낮아졌는데, 이는 고등소채의 재배와 桑田面積의 증대와 관련된다. 잡견은 쉽게 부패하지 않고, 가볍기 때문에 소비자로 운반함은 크게 문제시 되지 않으며, 단위 면적당 생산성도 비교적 높다.

뽕나무는 每年 뽕잎의 수확이 가능하나, 잡견의 판로는 煙草보다 불안정하다. 1965年以後 잡견이 主로 對日輸出品으로 판매되었을 때는 桑田의 面積이 증대하였으나, 1974년 日本의 生絲

65) 함양협연초조합 자료제공 (1978년 7월 30일).

66) 앞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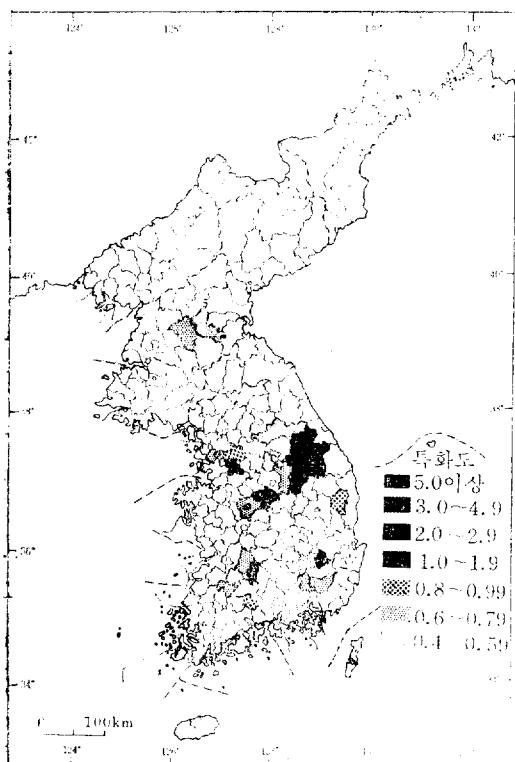


그림 9. 1920년 연초집중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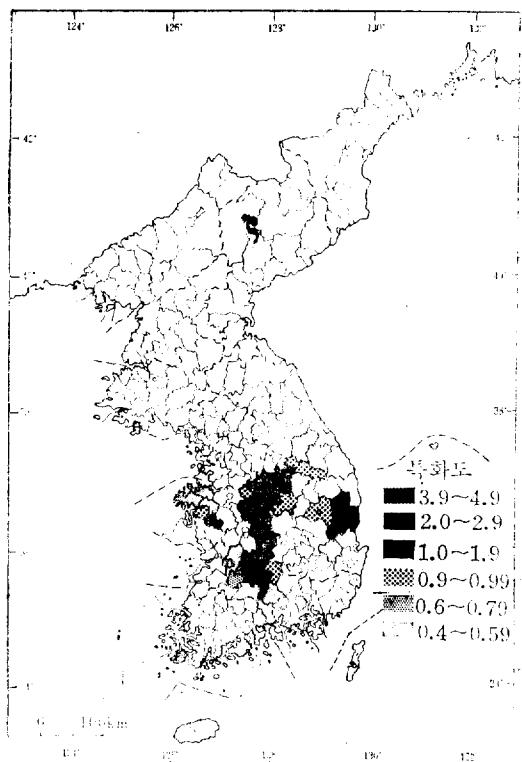


그림 11. 1961년 연초집중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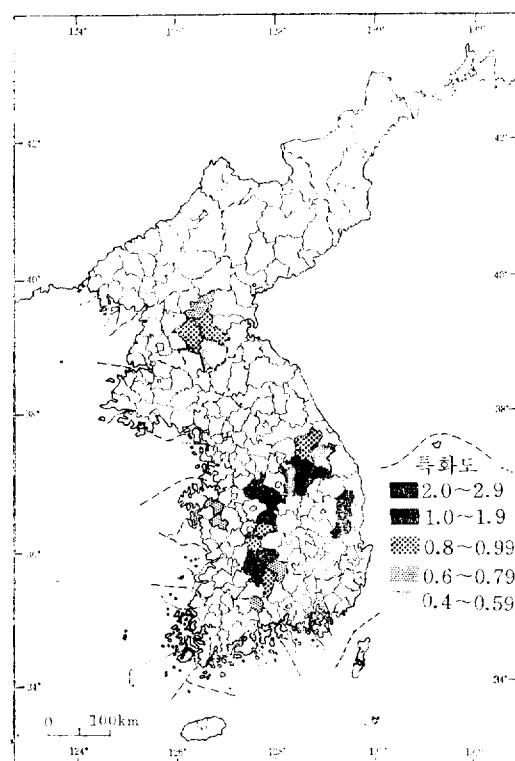


그림 10. 1940년 연초집중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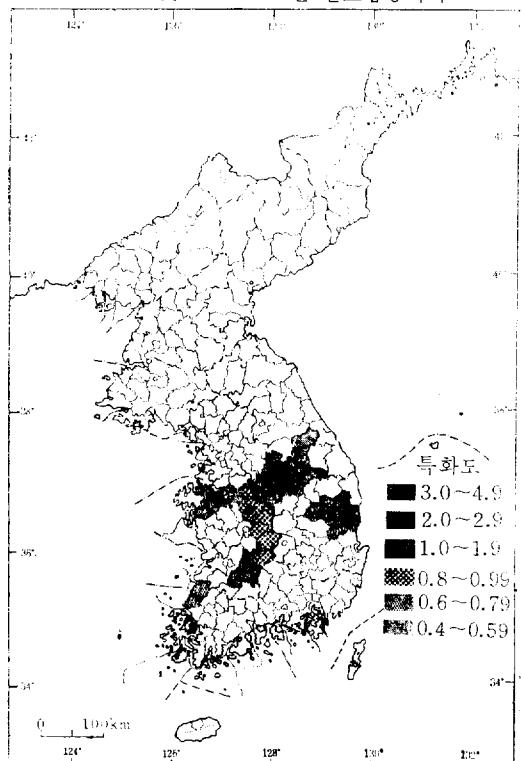


그림 12. 1976년 연초집중지역

輸入規制의 실시는 桑田面積의 감소⁶⁷⁾를 가져왔으며, 桑田面積의 감소는 煙草栽培 면적과 무우배추 등의 소채재배면적의 증대를 가져왔다.

전북 북부지역인 무주, 진안의 煙草栽培는 1961年보다 1976年の特化度가 낮은 반면 무우, 배추, 고추 등의 소채류와 인삼栽培가 증대하였다.

한편 煙草栽培지역과 지형을 관련시켜 볼 때, 煙草를 集中的으로栽培하는 지역의 대부분이 해발고도 200m 이상의 지역이다. 이는 山間地帶에 위치하는 農家는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비교적 높고, 판로가 안정된 煙草栽培를 함으로서 生活에 必要한 資金을 마련할 수 있다는데 있다. 또한 煙草栽培지는 排水가 잘 되어야 하므로 山間地帶의 傾斜地는 그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셈이다.

5. 煙草栽培地域의 特性

本章에서는 煙草栽培地域의 特性을 구명하기 위하여 연초재배의 特化度가 가장 높게 나타난 英陽郡 石保面을 事例研究로하여 연초재배와 지역관에 관하여 考察하고자 한다.

(1) 英陽郡 石保面의 경우

경상북도 英陽郡의 南端에 위치하는 石保面(그림 13)은 해발고도 200m~650m에 이르는 山間地域이다. 中生層의 편마암이 主이며, 土壤은 粘質壤土이다. 半邊川의 支流인 화매천이 石保의 中央部를 지나고 河川유역과 얕은 골짜기는 논으로, 완만한 傾斜地는 밭으로 利用하고 있다.

石保는 山間地帶에 위치하므로 耕地面積이 좁아 1호당 경지면적(0.87ha, 1976년)은 全國(0.96ha) 보다 작으나, 1호당 農作物 생산액(1,784,055원)은 全國(1,180,645원) 보다 많다.

이는 土地生產力이 전국수준을 월등히 능가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最近研究⁶⁸⁾에 의하면 石保를 포함한 英陽郡의 土地生產力이 全國에서 가장 낮은 地域들中 하나로 나타남은 米穀大麥, 裸麥, 粽, 小豆; 大豆等만을 研究 對象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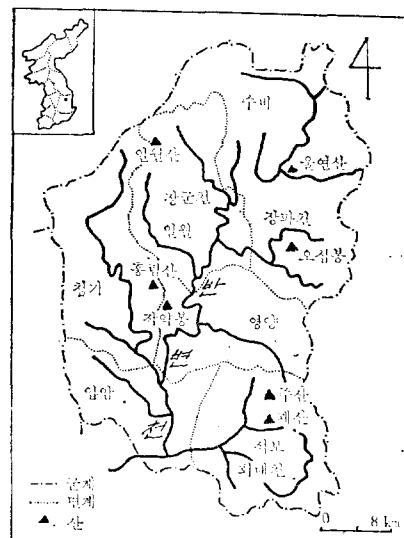


그림 13. 연구지역의 위치

物로 하였기 때문이다.

石保의 農作物을 作物別로 比較해 보면, 主食인 米穀과 麥類의 비율이 낮고 연초가 가장 높은 비율(농작물생산액의 44%, 12.4천8백원)을 차지하므로 地域研究의 對象作物로 煙草를 첨가시킴이 필요하다. 연초以外 全國보다 생산율이 높은 作物은 豆類와 소채류이다. 豆類의 생산액이 높음은 연초의 輪作과 間作으로 豆類가 많이 재배되기 때문이고, 소채류는 연초의 後作 또는 輪作으로 主로 재배되는데 연초를 三年 정도 連作할 경우 병충해의 피해가 심하므로 一年間은 豆類와 소채류를 재배한다. 소채에 있어서는 고추(177,422천원, 소채의 40.5%)가 주이며, 以外에는 배추, 무우, 감자 등을 재배한다.

石保에서 煙草를 많이 재배함은 다음과 같은 理由에서이다. 즉 石保는 山間地帶에 위치하여 農耕地가 좁아 식량의 自給自足이 不可能하므로 식량구입과 日常生活에 필요한 現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금작물의 재배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石保는 대소비지인 서울, 부산 등과 멀리 떨어져 있어 商品作物의 판매에 있어서 다른 地域과의 경쟁에 不利하므로 가격과 販路가 安定되고單

67) 김기영, 1975, “한국농업의 지리학적 고찰”,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7~38.

68) 徐贊基, 1975, “한국농업에 있어서 토지생산력의 분포와 그 요인”, 경북대학교 논문집, 제20집, pp. 213~262.

位面積當 生產性이 높은 煙草재배를 많이 하게 되었다. 또한 고추재배가 많음은 傾斜地에서 재배가 可能하며 건조이후 부패의 염려가 없고 重量이 가벼워 운반에 便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추는 價格과 販路가 不安定하므로 各 農家에서는 고추만을 主業으로 재배하지는 않고 있다.

石保의 煙草栽培始作에 對한 具體的 記錄은
없으나 18C 中藥에 看 「長醫農家」에는 英陽에서
연초가 환금작물로 재배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보아 石保의 煙草栽培는 18C 以前에 이 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最初의 栽培種은 재배 종에 속하는 安東葉이었으며 1940年代 황색종이 보급되어 1958年에는 石保의 全地域에서 황색종 만이 재배되었다.⁶⁹⁾

1960年代 以前까지 연초재배는 主로 平地에서 行하였으며 傾斜地에서는 고추와 콩을 재배하였으나 그 質과 量은 매우 저조하였다.

그러나 1960년頃에 산비탈의 개간지⁷⁰⁾에서 재배한 煙草의 質과 量이 平地에서의 재배보다 우수함에 따라 모든 연초재배 農家는 傾斜地를 개간하여 연초를 재배하기 始作하였다.⁷¹⁾

1960年代以後 연초재배는 傾斜地에서 主로 行
하였겠으며 그 面積은 每年 증가하였다. 그러나
1976年 以後 政府가 傾斜地 開墾을 막음에 따라
연초재배 면적은 다소 감소하였다.

연초재배의 경영규모는 매우 영세적이다. 石保의 大部分 煙草栽培地는 1ha미만의 경영규모이며 3ha 이상의 대규모 경영농가는 없다. 연초재배지의 경영규모가 이와 같이 영세적인 것은 노동력 때문이라 생각한다. 연초는 많은 勞動力を 필요로 하는 작물이며 勞動力 구성의 99%(自家勞動者數: 8,100名, 雇傭勞動者數: 100名)가 가족노동이므로 연초재배지의 規模는 각 農家の 가족노동으로 경영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대략 그 윤곽이 결정된다.

이와같이 石保의 연초재배는 오랜 歷史的背景
뿐만 아니라 연초는 傾斜地栽培의 可能性과 적
응력이 큰 品種이며 가격과 판로가 안정되었다는

等의 역사적, 기술적, 사회경제적 여건 등이複合的으로作用하여 연초재배가 가장 적절한 土地利用體制라는 “농업 멘탈리티 개념 (The concept of farming mentality)”⁷²⁾에 의해 形成된 연초재배 中心地라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라 생각한다.

(2) 煙草地域의 景觀

일반적으로 煙草地域의 景觀은 一般 農業地域의 景觀과 區分되는데, 연초지역의 대표적인 특성은 土地利用과 乾燥場施設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림 14. 석보면 원리동의 토지이용도 (1976년)

69) 영양군 협연초 생산조합 자료제공.

70) 1960년 석보면 주남동에 거주하는 이현국씨가 산비탈 개간지에 연초재배를 하였다.

71) 이증섭씨(석보국민학교 교사), 個人面談, 1978년 7월 2일

72) J.E. Spencer and Ronald J. Horvath, 1973, "How does an agricultural region originate?", *Annals of A.A.G.*, 63, pp. 74~92.

村落景觀을 들 수 있다.

먼저 土地利用의 類型을 보면, 石保의 耕地率(1976年 현재)은 0.97%(1,329.7 ha)이며 이중 밭이 73.4%(976.2ha)를 차지한다.

그림 14에 의하면 村落은 계곡 입구에 위치하여 集村을 이루며, 계곡유역은 논으로 이용하고 傾斜地는 밭으로 이용한다. 傾斜地에 위치하는 대부분의 밭에서는 연초(605.6 ha)가 재배되며 그외 지역에서는 고추(166.6 ha)가 많이 재배된다. 또한 집주위의 밭에서는 自給用의 소채류를 재배한다.

煙草乾燥施設에 의해서 나타나는 村落景觀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一般農業地域과 煙草地域의 村落景觀의 차이이며, 다른 하나는 연초지역내에서도 栽培品種에 따라 村落景觀을 달리 한다.

煙草의 收納은 乾燥한 것이라야 하므로 각 농가에서는 연초의 수확 후 이를 건조하는 乾燥施設을 必要로 한다. 연초를 재배하는 지역에는 건조장 시설이 存在하나 연초는 品種에 따라 건조 방법이 다르므로 모든 연초지역의 건조장 시설이 같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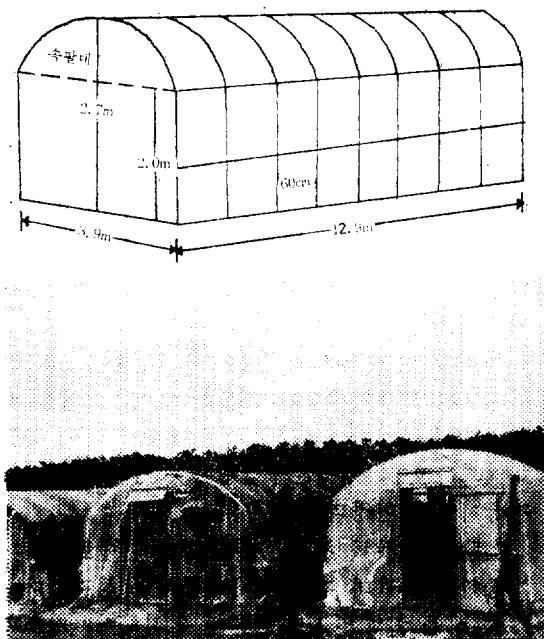


사진 1. Burley 종 건조장. 담배밭 10a당 10~15평 크기의 건조실이 필요하므로 Burley종 건조장은 주택밖에 설비한다.

우리 나라에서 主로 재배하는 연초의 品種은 Burley種과 황색종인데 Burley種은 그늘에서 건조시키며(陰乾法), 황색종은 火力에 의해서 건조(火乾法)시킨다. Burley種의 건조장(사진 1)은 비교적 크므로 집밖의 空地 또는 담배밭 가까이에 위치하며 설비자재는 투명한 비닐을 나무로 만든 골조 위에 덮고 그 위에 遮光幕을 덮어 乾燥時期에 따라 遮光幕을 수시로 벗길 수 있게 한다.

황색종의 건조장(사진 2)은 크기가 Burley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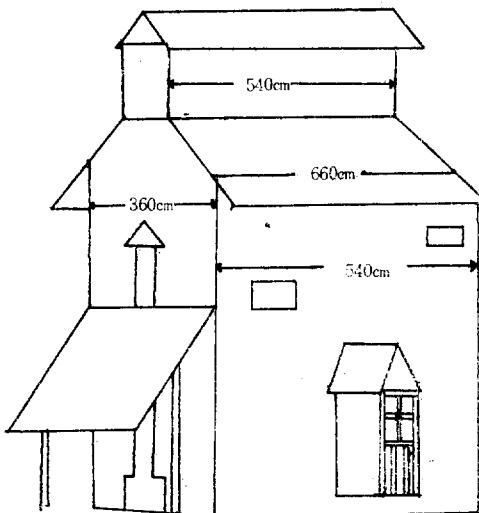


사진 2. 황색종 건조장. 담배밭 10a당 1.5~1.8평 크기의 건조실이 필요하다. 크기가 Burley종 건조장에 비하여 작고 화력조절 때문에 대부분의 건조장은 재배농가의 울타리내에 설치한다.

건조장에 비하여 작고 건조시기에 따라 화려조 절을 必要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황색종 건조장은 관리가 쉽도록 栽培 農家の 울타리内에 설비한다. 그러나 마을공동의 건조장을 설비할 경우, 村落内에 있는 空地에 건조장을 여러개 설비하며 관리인을 고용하여 마을공동의 자금으로 운영한다.

以外에도 황색종 栽培지역은 건조장의 건물높이 (6.8m)가 일반농가 보다 높아 垂直的 景觀에 있어서 다른 농촌과 크게 다르며, 각 재배농가마다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건조장을 울타리内에 가지고 있어야 되므로 農家間의 平面的인 배치에 있어서도 그 밀도가 낮아 大體的으로 촌락이 흘어진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건조장 벽체의 材料는 흙벽돌, 또는 cement를 使用하여 지붕은 slate 또는 합석을 덮고 연료는 油類, 연탄, 나무等을 使用한다.

石保의 경우, 황색종의 재배지역으로 각연초 재배농가에서는 건조장시설을 가지며 乾燥에 필요한 燃料供給을 위하여 마을 공동의 油類 tank를 道路邊에 두었다. 건조방법에서의 燃料의 변환은 직접적으로 연초재배지역 경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을 주변에 설치된 油類 tank는 연초栽培촌락에 새로이 추가된 한 景觀 要素로서 등장하였다.

그 밖에 煙草栽培지역은 농가수입면에서도 다른 농촌지역보다 높아 다른 지방의 村落에 비해 各種商街가 집중 운영되며, 특히 음식업等이 많은 것이 특색이다.

석보의 경우 정기시장외에도 각종 常設商街의 비율이 월등히 많은 것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煙草栽培가 集中的으로 行하여지는 山間地帶는 재배농가의 수입이 높아짐에 따라 外部와의 접촉이 날로 많아져, 最近에 와서 각종 교통수단에 의해 쉽게 外部地域과 接近할 수 있는 山間地域으로 전환하고 있다.

6. 結論

韓國農業地域에 관한 여러 研究들에 있어서 地域區分을 위한 對象作物은 대개가 미곡, 맥류, 두류, 잡곡, 서류, 과수, 소채, 特用作物等이며

特用作物은 면화, 대마, 녹비작물等에 국한하였다. 그러나 韓國에서 재배하는 特用作物은 섬유작물(면화, 대마, 저마, 아마), 완초, 닥나무, 박하, 호프, 유채, 연초, 인삼 等이다. 이들은 각각 재배조건, 전파와 보급과정, 재배기술의擴散過程, 用途等이 다르므로 같은 範疇에 둑어서 그 特化地域의 分布나 要因을 分析하기가 곤란하다. 그중 煙草는 식량작물보다 資本의 投資가 작음에 비하여 단위면적당 生산성이 높으므로 농가경제에 있어서도 중요 역할을 하며 이의 자연적 재배조건에 대한 제약은 없으므로 한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煙草가 한국에 전파된 것은 조선시대 光海君 8年~14年間(1616年~1622年) 日本으로부터이며, 그 始原地는 倭館(경북 칠곡군), 東來, 蔚山 등지이다. 1700年代에는 전안, 삼등, 성천, 강동, 영월, 영양等의 名葉產地를 형성하였는데 이는 煙草栽培의 空間的擴散이 1700年代以前에 交通路와 Neighborhood effect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1920年代以前까지의 煙草地域은 조선시대의 名葉產地를 中心으로 形成되었으나 1920年以後의 煙草栽培地域은 충북지방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는 1912年 忠州地方에서 재배하기 시작한 황색종 재배의擴散이 다른 지역보다 빨랐기 때문이다.

全國的으로 재래종 대신 황색종을 재배한 것은 1960年代이며, 以後부터 煙草栽培 지역은 集中 경향을 나타내는데 특히 중남 북서부지역, 전북북부와 충북지역, 영양을 중심으로 한 청송, 안동지역에 집중하였으며 이중 영양의 특화도가 가장 높다.

1970年 以後 충남북서부지역, 전북북부와 충북지역의 煙草집중율은 저하한 반면, 영양을 비롯한 경북북부지역에서는 연초재배가 더욱 집중하였고, 고창, 영광, 무안等의 해안지역에 연초집중지역이 형성되었다.

英陽을 비롯한 청송, 안동 等地에 연초재배가 집중함은 다음과 같은 이유때문이라 생각한다.

즉 이들 地域은 山間地帶에 위치하며, 대소비지인 서울, 부산 등과 멀리 떨어져 있어 煙草以外의 商品作物의 판매에 있어서 다른지역과의 경쟁에 不利하므로 價格과 판로는 安定된 연초를

재배함으로써 농업경영 이윤을 최대로 할 수 있다는 오랜 기간 累積된 농업 멘탈리티(farming mentality)의 發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다.

煙草集中地域은 乾燥場 시설에 의해 일반농업 지역의 村落과 구분되며 재배품종에 따라서도 그 景觀을 달리 한다.

황색종 재배지역은 村落의 垂直的 景觀에 있어서 건조장의 높이에 의해 다른 지역과 구분되며, 農家間의 平面的인 배치도 일반농가보다 낮은 밀도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結論的으로는 韓國의 煙草栽培지역은 그 時期에 따라 栽培의 集中지역이 딜리 發達하여 왔으며, 特히 품종, 전매정책, 농업기술의 발달과 경사지 개간등이 크게 그 입지를 좌우해 왔다고 하겠다. 또한 作物栽培의 國地화(localizaton)현상이 계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같은 煙草栽培集中지역의 탁월성에 대한 인식은 한국농업 지역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리라고 믿는다.

(釜山 女大 講師)

A Geographical Study of the Korean Tobacco Farming Region

Kwang Ja Kim*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how the Korean tobacco farming region has been geographically formed by natural and cultural environments, and to examine whether it can be recognized as a major part of agricultural regions.

The questions asked in this study are associated with the spatial diffusion of tobacco cultivation, the patterns and processes of the farming region from 1900 to 1960, and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concentrated farming area since 1960.

The study is inductively approached and most data used were collected from old records and field works. The delineation of the tobacco farming region was derived by applying the concept of the uniform region.

Tobacco was introduced through Japan during the years of Kwang Hae Kun (1616—1622). According to the old records, three places, Waekwan, Dongrae, and Ulsan, were the first tobacco raising areas. In the 1700's the well-known tobacco farming regions were scattered all around the nation in places like Jinan, Samdeung, Seongcheon, Gangdong, Yeongweol and Yeongyang. This distribution pattern suggests that tobacco farming in Korea developed spatially along main traffic routes before the 1700's.

Until the 1920's the pattern of tobacco regions was relatively static. Since the 1920's, it has shown a pattern of concentration in the Choongbuk province, where the new highly productive yellow tobacco has been introduced.

It was not until the 1960's that yellow tobacco instead of the native variety came to be cultivated all over the country. In the 1960's, the tobacco farming region tended to be concentrated and localized in north western Choongnam, northern Cheonbuk, Choongbuk, and Kyeongbuk including Cheongsong, Andong, and Yeongyang.

Since 1970, tobacco production has declined in some of the former major areas of cultivation in terms of its density, while there have appeared highly concentrated areas in Cheongsong and Andong, centered around Yeongyang. There has also emerged a secondary major concentrated area along the coast including such places as Kochang, Yeongkwang and Mooan. The appearance of the Yeongyang tobacco area as the most important core region can be described as follows; at first this area has the disadvantage of being in competition with other places for selling cash crops besides tobacco, because it is located in a mountain zone and it is far from the major metropolises of Seoul and Pusan. Thus has been formed the farming mentality that agricultural management makes the most profit on farming tobacco because tobacco is stable in price and selling routes. As a result of this longstanding

belief, these areas (Yeongyang, Cheongsong and Andong) have developed into tobacco concentrated regions.

Finally, the tobacco concentrated regions of Korea have changed through time. The factors affecting this change have been the kind of tobacco grown, the monopoly system, agricultural techniques and the expansion of arable

land through the clearing of slopes.

In conclusion, the research indicates that the localized and concentrated patterns of tobacco cultivation are geographically typical.

Thus, recognition of tobacco farming region is important to understanding the agricultural region of Korea as a whole.